

청소년 페미니즘에서 기본소득 정치로

양지혜

기본소득당
옹혜인의원실
비서관

“제가 교복을 입고 마스크를 벗고 처음 얘기해보는 자리예요”

스쿨미투 집회에서 한 청소년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이가 침묵을 지키고 자신을 숨겨야 했을 시간이 느껴져, 마음이 아렸다. 말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여학생들이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자기 경험을 고발하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기특한 여고생’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고자 했다. 나는 페미니스트 동료들과 함께 학교 담장을 넘어, 교육청으로, 국회로, 국제사회로 스쿨미투를 알렸다.

누군가는 페미니스트는 ‘치우친’ 사람이므로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치우친 위치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말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졌던, ‘국민’이 아니라고 대우받았던 이들의 목소리다.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어리거나 여성이어도, 똑똑하지 않고 돈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기본소득당의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

청소년도 돈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내 주변엔 집을 나오고 싶은 친구들이 많았다. ‘부모의 폭력이 싫어서’, ‘나답게 살고 싶어서’……. 이유는 다양했지만 갈 곳이 없

는 것은 똑같았다. 하루는 친구에게 “집을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애써 침착한 척 “방법을 찾아 보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막막했다. 청소년인 우리에게 ‘자립’이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 궁금해졌다. 청소년은 “말 안 들으면 집 나가”라는 부모의 협박을 견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

대학을 졸업한 친구는 수십 개의 이력서를 쓰고, 면접에서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 될 더 열심히 해야될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친구의 막막함을 들으며, 나는 궁금해진다.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할까?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학자금 대출에 짓눌리며,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다. 나와 친구들이 정상가족에 있지 않아도,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쓸모와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 세상에 기본소득이 있었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건져지지 않는 여성, 청소년, 청년, 소수자의 삶과 함께한다. 나는 누구나 나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본소득 정치를 결심했다.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 정치는 모든 시민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다. 코로나19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청소년은 자신의 몫을 누리지 못했다. 청소년의 재난지원금을 보호자가 대리 수령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의 몫을 가져본 적 없는 시민에게는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소득 역시 ‘자기 돈’이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정치는 모두에게 경제적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나는 기본소득당에 입당하고 <청소년도 돈이 필요하다>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하고 싶은 말은 간단했다. 청소년도 돈이 필요하다!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시설의 규율에 따르지 않아도, 열악한 노동을 견디지 않아도, 존엄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 필요하다.

우리는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민법에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명시하고, 청소년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공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내게 기본소득 정치를 구체화하는 시간은 소수자의 관점에서 기본소득 이후의 사회를 설계하는 과정이었다.

성과지표보다 중요한 모두의 삶

나는 서태성 기본소득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경기도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제안했다. 우리의 핵심 공약은 전 도민 기본소득 10만 원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을 청년, 농민에 이어 경기도민 전체에게 확대하자는 내용이었다. 부동산 취득세를 포함한 공유부에 해당하는 경기도의 재원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삼았다.

우리는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당사자들을 직접 만났다. 참여자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등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이 아니라, 나의 욕구에 맞추어 쓸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만 24세에게만 지급되기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기보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주는 ‘도움’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나누며, 만약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도움’보다는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나눴다.

청년기본소득을 확대하는 일은 경기도민 모두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루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어플을 깐 적이 있다. ‘경기지역화폐’의 용도를 소개하는 문구 중 하나로 ‘자녀 용돈 카드’가 눈에 띄었다. 경기지역화폐로 부모가 자녀의 소비 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용도별로 통제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지역화폐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면, 지역화폐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달갑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함께한 기본소득당 경기도 선거운동본부는 기본소득을 아동청소년 친화적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먼저 어린이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판동초등학교에 방문했다. 조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되고, 심사 없이 원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어린이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자유와 책임을 배우는 계기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청소년인권단체를 만나, 기본소득이 청소년의 권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고민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고,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화를 나눴다.

때로는 기본소득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선별 복지의 행정비용과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기본소득이 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효율성’과 ‘성과지표’만을 따져온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자율성과 권리를 복돋울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있다.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조건과 심사 없는,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소득당 경기도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과정에서 청소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방문했다. ‘일하는 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따지기보다는 청년의 삶 자체를 지원했다. 조건 없이 식비 바우처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교육과 일자리를 매칭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은 동사무소 가는 것부터 망설인다고 하며, 단순한 ‘바우처’나 ‘복지혜택’으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당장의 성과지표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통합적이고 밀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몫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이 대변할 더 많은 얼굴들

“누군가는 제가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저는 20대 여성이며, 경험이 없고 미숙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고, 정치를 하기에는 멍청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페

미니스트입니다.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성, 청소년, 쿼어,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게 ‘치우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 양지혜,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출마선언문 中-

기본소득당의 후보로서 생애 첫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내게도 망설임이 있었다. 함께 출마를 결심한 여성 청년 동료들이 없었다면, 도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여성 청년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 여성 청년의 삶은 대선 시기어나 반짝 다뤄진 뒤, 사라졌다. 우리 사회는 20대 여성인, 학벌이 좋지 않은, 페미니스트인 시민들의 삶은 정치의 주제가 아닌 양 굴었다.

나는 나와 비슷한 또래 여성들에게 ‘덜 나쁜 선택지’가 아닌 ‘괜찮은 선택지’가 되고 싶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스스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여성, 청년, 대학거부자, 청소년인권활동가, 그리고 페미니스트로 기본소득 정치를 하며, 기본소득이 바꿀 삶의 가능성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다.

기본소득당은 경기도의회의원 비례투표에서 13,487명의 표를 받았고, 나는 0.23%로 낙선했다. 내게 득표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선거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였다. 스쿨미투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 손을 잡아준 익명의 시민 분, 투표권이 없어 아쉽다며 응원을 전해주셨던 청소년 시민 분, 전 도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유세차에 올라 매번 발언하셨던 선본원 분들이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기본소득 정치는 이어진다. 나는 8월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 페미니즘 등의 의제에서 활약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대변하고자 하는 ‘모두의 삶’을 보다 구체적인 얼굴로 제시하고자 한다. 기울어진 정치판에서 여성, 청소년, 청년, 성소수자 등 지워진 존재를 다시 호명하고자 한다. 내게 기본소득 정치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이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질문을 던지는 정치다.